

## 이 뭘고?



① **차잔(茶盞)**: 찻주전자에서 우려낸 차를 따라 마시는 잔으로 도자기로 만든 것이 가장 흔하며 은이나 동, 나무로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다. 차잔은 입구쪽이 바닥보다 약간 넓어져 마시기에 편하며 흰색 차잔은 찻물의 색을 감상하기에 좋다.

② **다탁(茶托, 찻잔받침)**: 뜨거운 차잔을 손으로 들기 어려우므로 잔을 받치는 데 사용한다. 주석과 구리, 도자기, 돌, 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찻잔과 동일한 재질의 것이 보기에는 좋지만 도자기나 돌의 경우 잔과 받침이 부딪치는 소리가 많이 난다. 도자기 차잔에는 나무 다탁을 많이 사용한다.

③ **차호(茶壺, 차통)**: 마른 차잎을 담아 두는 통. 차는 습기와 냄새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하므로 밀봉이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한다.

④ **다관(茶罐, 차우리기)**: 입차에 풀인 물을 넣어 차를 우려내는 도구. 다관은 손에 쥐어보아 다루기에 편해야 하며, 탕수(湯水)에 비해 다관이 크면 물이 빨리 식고 향기가 쉽게 달아난다. 또한 몸통과 뚜껑이 제대로 맞아야 하고 물대(주둥이)에서 찻물을 따왔을 때 찻물이 다관의 몸통으로 흘러내리지 않는지 살펴본 후 선택한다.

⑤ **속우(熟盃, 물식힘그릇)**: 귀때사발, 귀탕기, 유발(乳鉢) 등으로 부른다. 풀인 물을 식히거나 우려낸 차를 담아 잔에 따를 때 사용한다.

⑥ **차수기(退水器, 물버림사발)**: 찻잔을 데운 물이나 찻잔 씻은 물, 차 찌꺼기 등을 버리는 그릇으로 개수그릇이라고도 한다. 입구가 넓은 것이 좋다.

⑦ **다포(茶布)**: 다탁에 까는 천으로 삼베나

### □ 다구, 어떻게 써야 할까?

"다관이나 찻잔은 알겠는데, 저 대나무 숟가락은 어디에 쓰는 거지?" 처음 차를 접한 사람들은 차 마시는 복잡한 형식보다, 자신 앞에 즐지어 놓여 서 있는 수많은 다구들에 먼저 놀라게 된다. 차 한 잔 마시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다구들이 필요한 것일까? 우리나라 기본 찻상 차림을 통해 각 다구의 쓰임과 고르는 법을 알아본다.



을 한쪽을 얇게 깎아 차를 떠내기 좋도록 만든 것이다. 금속으로 만든 차시는 녹차가 쉽고 금속 냄새가 나므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나무는 차의 향을 해치지 않고 습기에도 강해 많이 사용된다.

⑧ **다건(茶巾, 차수건)**: 찻잔이나 다관 등의 물기를 닦는 수건. 외출배(거즈나) 고운 삼베로 만든 것을 주로 사용한다.

⑨ **탕관(湯罐)과 차술**: 찻물을 끓이는 화로와 주전자. 최근에는 전기주전자를 주로 사용한다.

⑩ **퇴수기(退水器, 물버림사발)**: 찻잔을 데운 물이나 찻잔 씻은 물, 차 찌꺼기 등을 버리는 그릇으로 개수그릇이라고도 한다. 입구가 넓은 것이 좋다.

⑪ **다포(茶布)**: 다탁에 까는 천으로 삼베나



무명 등으로 만든다. 다탁과 다구가 부딪쳐 소리 나는 것을 막아주고 물기를 흡수한다. 여름에는 주로 삼베 종류를, 봄·가을이나 겨울에는 무명, 옥양목 등을 사용한다.

글=여수형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조선시대 ①



왕가에서는 거의 모든 의례에 차가 빠지지 않았으니 세자궁의 회강다례도 그 한 예이다. 다기는 도자 외에 고급 은제 다기를 사용했다. 이런 풍조는 관원과 선비들에게도 불어와, 유생들이 모여 강론을 한 다음에 차를 마시자고 했을 정도다. 사사(寺社) 학파운동은 계속되었으나 이 때에도 선승들의 차 생활은 이어졌다.

유묘사화가 일어나 많은 인적자원이 손실됐고 개척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문적(文籍)이나 문화적 기록들을 정비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각 지방의 토지 이용 현황과 거기서 생산되는 산물의 종류나 생산량을 파악하려 애썼다.

편을 남겼다. '달그림자 밝으며 시냇물 길어 차 달이는 연기 하늘 가르네'라는 구절이 유명하다.

⑤ 중경전의 다원과 세자궁의 밥주발을 은으로 만들도록 상의원(常衣院)에 일렀다.

⑥ 정춘년: 찻잎을 정지하게 알아서 <다보(茶譜)>를 찬술했다.

⑦ 육수성(1509~1605): <다료기(茶寮記)>를 찬술하여 인품(人品), 품천(品泉), 팽점(烹點) 등 일곱 가지 지켜야 할 것을 지적했다.

⑧ 서헌충: <수품(水品)> 두 권에 37군데 물에 관한 품평과 차 끓이는 일을 적었다.

⑨ 이시진(1518~1593): <보초강목>을 짓고 차에 관한 것을 썼다.

### 선승 차 생활 활성화...문화적 기록 노력 우리문화 일본 다도 기틀 형성에 기여

일본과의 교류는 잦았다. 이때 일본 다도의 큰 인물인 천리휴가 태어났으니, 그는 현재 일본 다도의 기틀을 확립한 천가(千家)의 시원이 된다.

① 보우대사(1509~1565): 조선 명종 때 문정왕후의 추천으로 봉은사 주지가 됐으며 많은 다시를 남겼다.

② 회강다례: 한 달에 두세 차례 왕세자가 스승과 빈객들을 모아 강론하고 난 후 행하던 다례.

③ 유생들의 강론이 끝나면 차를 마시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한 주장.

④ 서산대사(1520~?): 법호는 청허(淸虛), 법명은 휴정(休靜)이다. 임란 때 승군을 이끌었고 다시 여러

⑩ 서위(1521~1593): 시문학에서 모두 능해 많은 저술을 남겼으니 <다경> 한 권도 있다.

⑪ 왕세정(1526~1590): 차를 즐겨 차에 관한 사(詞)를 짓기도 했다.

⑫ 예아미와 상아미가 동산어물(東山御物)의 정리 및 서원(書院)의 장식과 점다법 등을 만들어 '동산류(東山流)'가 형성되었다.

⑬ 천리휴(1522~1591): 무야소구(武野紹鷗)에게 15년 동안 사사했다. 58살에 고려 직전신장(織田信長)의 다두(茶頭)가 되고 후에 풍신수길의 다두가 된다. 그의 기법은 초암차였으며 고려 다원을 아주 좋아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한·일 차도구 명품전



한일 다도구가 한자리에서 모인다. 천한봉 명장(名匠)과 도예가 황동구씨의 작품을 비롯, 일본 유명 차도구를 볼 수 있는 '한·일 차도구 명품전'이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예술품갤러리(www.yesongart.com)에서 펼쳐진다.

'봉산도예전'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 나가사키현의 무형문화재 히라도가소우(平戸雅松)의 일차 다기세트와 일본 차도구를 비롯해 천한봉 명장의 백자 5인다기세트, 두두옥다완, 황동구씨의 평이도다완과 소이도다완 등이 선보인다. (053)426-1515

일시	시간	행사내용	장소
6/15(수)	10:30-11:00	길놀이 공연	로비, 행사장
	11:00-12:00	개막식	로비
	12:00-13:00	구례 석정차 경매	중앙무대
	13:00-15:00	들차회 및 다식만들기 체험	이외전다발
	13:30-14:00	원광대와 함께하는 행다시연	이외전다발
6/16(목)	12:00-18:00	제다시연	중앙무대
	14:00-17:00	티월드 명진	중앙무대
	17:30-18:00	우리웃, 한복패션쇼	중앙무대
	18:00-18:30	시물놀이 공연	중앙무대
	12:00-15:00	대만 차 시연회	중앙무대
6/17(금)	16:00-17:00	봉은다례원 전통 선비다법	중앙무대
	17:00-18:30	차시 낭송회	중앙무대
	13:00-14:00	티아카데미-중국다예시범	중앙무대
	14:00-15:00	녹차화장품 만들기 체험	중앙무대 앞
	15:00-16:00	봄맞이 점다회	중앙무대
6/18(토)	16:00-17:00	중국 18현 송모차례	중앙무대
	12:00-13:00	녹차화장품 만들기 체험	중앙무대
	13:00-14:00	초의차문화연구원-일지일학다례	중앙무대
	13:00-17:00	제다 시연	이외 전다발
	14:00-15:00	중국 다예 연구중심	중앙무대
6/19(일)	16:00-18:00	살가차인회-생일차	중앙무대
	13:00-14:30	소안다도원-음양오형다도	중앙무대
	14:30-17:00	제다 시연	이외 전다발
		전주한옥마을-전주시립막단	중앙무대

### 미리 보는 '2005 티월드 페스티벌'

####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6월 15~19일)

올해로 3회를 맞는 '2005 티월드 페스티벌'이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과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 차 관련 업체와 중국과 일본, 대만,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총 11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참가 업체들의 부스전시 외에도 '대만 보이차 사진전' '보성차시험장 차제품 전시'를 비롯해 한국차생산자연합회의 '한국차품평회' 향원당의 '티 테이블전' 녹차화장품 만들기 체험 등이 마련된다.

한편 한국차학회(회장 신미경)는 17일 '차 품질 평가방법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차 품평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차의 품평기준을 마련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티월드 홈페이지(www.teanews.com)를 통해 사전등록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02)6000-8481

### 현대불교신문사

# 보살님! 올 백중재에는 '염불환향곡'이 인기입니다!

어디 염불만한 기도와 수행이 있겠습니까?

올 봄,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염불환향곡(念佛還鄉曲)』을 출간하였습니다. 『염불환향곡』은 뛰어난 운율의 미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가요체 염불곡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외우거나 따라 읽기 쉽게 리듬이 스며있는 현대인의 불교 수행 지침서입니다

이제 염불로서 각 가정에 부처님 말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염불환향곡(念佛還鄉曲)

기성 캐신 저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해설집: 신국판/200쪽/가격 7,000원  
독송집: 국배판/ 92쪽/가격 5,000원

구입은 인터넷 · 통신판매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즉시 전화 · 인터넷 주문매달되며, 대형 서점 및 불교출판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